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3월 7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김지숙 ☎440-2946 • 담당자 안재석 ☎440-2939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올 하반기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쉼터’ 공모 선정…국비 13억6천여만 원 확보 -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 상담·심리치료, 등·하교 등 교육지원 제공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피해장애아동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시비를 포함한 27억 여원을 들여, 남·여를 구분해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임시보호하는 곳이다. 시에는 그동안 피해장애인쉼터가 있기는 했지만, 피해장애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2월 3일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쉼터 공모에 지원했고, 피해장애아동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울산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2022년 설치 공모가 처음 실시

돼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자체가 선정된 바 있다.

학대 등 피해장애아동(18세 미만)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쉼터에 입소의뢰를 하면 된다.

입소한 피해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등·하교 등 교육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도시공사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운영기관 위탁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존에 피해장애인쉼터가 있지만 피해장애아동이 성인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장애아동쉼터가 개소되면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와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